

아띠들 발 달린 쓰레기통 되다

충분히 성공적인 캠페인,
반면 아쉬움과 비판의
목소리도...



단체 사진/▲ 10월17일 흘랑따야 엔드포버티 캠페인 (사진: 김정식 아띠)

10월 17일은 UN 지정 세계 빈곤퇴치의 날 양곤팀은 깡홀라 마을서 연대 캠페인 동참

라온아띠 양곤팀은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양곤시 북부 흘랑따야 타운쉽에 속한 깡홀라 마을에서 End Poverty Campaign을 진행했다. 흘랑따야 타운쉽은 양곤시의 대표적인 공업지대로, 시의 개발 정책에 밀려나온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민의 대부분은 공장에서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고, 영세한 상인들이라고 한다. 흘랑따야의 깡홀라 마을은 양곤팀이 10월 초부터 아띠스쿨을 열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시의 개발전선 뒷전에 놓여있는 까닭인지 마을의 쓰레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양곤팀이 거주하는 다운타운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Y.C.D.C(Yangon City Development Committee)의 쓰레기통을 깡홀라 마을에서는 찾을 수 없다.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그래서 더더욱 주민들도 아무렇지 않게 길에 쓰레기를 버린다. 양곤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한다. 백종석 아띠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상에서 무심히 버리는 쓰레기가 쌓여 버린 길가를 돌아보고 마을의 환경에 좀 더 관심을 갖자는 의미를 나누길 바랐다”고 캠페인의 취지를 전했다.

캠페인이라는데..... 피켓과 부스대신 장갑과 바구니만

양곤팀은 캠페인으로 아띠스쿨 학생들과 함께 ‘쓰레기 줍기 게임’을 진행했다. 양곤팀의 목소리만 전하는 캠페인이 되기보다는 참여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로 만들고자 한 까닭이다. 캠페인의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연령대가 어린 층이었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였다. 게임의 룰은 간단했다. 참여자들이 팀을 이루어 골목길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모은다. 쓰레기 바구니를 든 아띠들은 참여자들을 피해 도망 다닌다.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다 모은 팀이 아띠들을 붙잡으면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단, 유리병 등 날카로운 물건은 손대지 않는다.) 당일 20여명의 학생들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게임은 약 40분 동안 양곤팀이 지정해둔 넓은 골목길 두 군데에서 진행되었다. 게임이 시작되자 참여자들은 의외로 차분하고 진지하게 쓰레기를 줍는 모습이였다. 신태정 아띠는 “모두 즐겁게 게임에 참여해 주었고, 다행히 다친 사람도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게임이 끝난 후 커다란 비닐봉지 7개가 쓰레기로 가득 찼고, 모두 함께 마을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것으로 캠페인은 마무리 되었다.

양곤팀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참여한 학생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캠페인을 마칠 수 있었다고 평했다. 또한 게임 진행 도중에 다른 주민들이 나와서 지켜보기도 하였기 때문에 아띠스쿨의 존재를 마을에 알림과 동시에 캠페인의 간접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과연 참여자들이 캠페인의 문제의식을 이해했고, 얼마나 이에 공감했는지 회의적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또한 캠페인의 대상이 마을 아이들에게 국한되다보니 마을 어른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빈곤에 대한 깡홀라 주민들의 생각을 캠페인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권희설 아띠는 ‘언어상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볼 시도를 하지 않은 점은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아띠스쿨 통해 환경에 대한 고민과 실천 이어갈 것

깡홀라 마을 End Poverty Campaign은 마을의 쓰레기를 통해 도시개발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주민들의 아픔을 읽는 일에서 시작했다. 그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양곤팀은 버린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는 작은 실천을 만들어가고자 했다. 미얀마 관련 서적들에서도 아시아 지역 뉴스들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깡홀라 마을. 그럼에도 양곤팀은 알고 있고, 소중하다고 믿는 이 마을에서 벌어진 작은 소동을 자체 신문인 월간버마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한다. 이 이야기가 깡홀라 마을만의 것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 덧붙여 양곤팀은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아띠스쿨에서부터 마을의 환경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풀어나갈 계획이다. 작은 실천들이 지속되어 마을길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권희설기자 noonseol@gmail.com



단체 사진/▲ (위)가족그리기 3학년반 (사진: 김정식아띠)
(아래) 청소후 학생들과 손씻는장면 (사진: 신태정아띠)

아이들에게 배움당하는 초보교사 5명

5명의 아띠들은 9월부터 쉐ષ빠에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그들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마을을 알아갈지를 시작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그러던 중 이곳에서의 마을 탐색, 주민들과의 친밀감 형성, 그리고 아띠들이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서 학교의 교사가 되는 것을 선택하였다고 밝혔다. 그 후 5차시의 커리큘럼(한국어, 미술, 체육, 보건)을 계획하여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미얀마의 공휴일과 불교 축제 일정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현재는 3차시의 수업만 진행 되었다. 이곳 수업에 대한 준비들또한 부족해 보였고(실제로도 그러했지만) 수업 노하우 또한 능숙하지 못한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학생들과 주민들은 5명의 초보교사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고 5명의 초보교사들은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수업 내용에 만족해하는 이곳 학생들 때문에 보람과 동시에 그들 수업의 부족함을 스스로 반성해왔다는 것을 밝혔다. 길면 25년 짧으면 22년의 생활 중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 가르쳐볼 기회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수업내용을 막론하고 이들이 그곳에서 아이들과 웃고 떠들며 어울리는 모습은 한국의 교생선생님과 같이 반짝 인기와 같지 않았다고 필자는 감히 평가해본다.

그러나 이들 5명의 초보교사가 앞으로 교생선생님의 반짝 인기만 느낄 것인지, 혹은 옆집 형이나 누나가 되어 그들의 삶을 같이 느낄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5명이 그들 안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기에 초보교사들 스스로 많은 것을 배워가며 주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것이라 기대해본다.

김정식 기자 jeongsik2da@naver.com

‘곰 세마리’ 영유아 힙쓸다

널서리스쿨의 앞 길에서 부터 신나게 노래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널서리스쿨의 넓은 공간에서는 4명의 여선생님 들과 4~6세의 아이들 40 명이 놀이, 예절 교육등을 공부하고 있다. 한쪽 벽에는 시간표가 붙어있지만,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이는 유동적인 시간표라고 한다. 아띠들이 9월 한달동안 널서리스쿨의 학습보조를 하며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수업의 진행방식은 늘 똑같은 이야기 수업과 같은 모양의 색칠수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형식이였다. 아띠들은 ‘조금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수업을 함께 하게 된다면 더욱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선생님과의 이야기 결과, 오후에 있는 율동 시간에 아이들과 율동과 놀이를 함께 하기로 하였다. 곰 세 마리 율동을 시작으로 하여 뽀뽀뽀, 그대로 멈춰라 등 신나는 노래와 재미있는 율동을 함께 하였다. 특히 곰 세 마리 율동을 좋아하는 몇몇 유아들이 흥을 주체하지 못하고 곰 세마리 만을 몇분동안 연속해서 부르지만 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다. 놀이시간에는 수건돌리기, 동대문을 열어라 등 뛰는 놀이를 하였는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선생님과 아띠들간에 언어적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놀이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하지만 곧 아이들은 손수건을 들고 신나게 뛰어놀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아띠들이 놀이시작을 외치지 않아도 선생님들께서 수건돌리기 놀이를 진행 하신다고 한다.



10월21일. 매일 아침 아띠들과 사이트를 동행 하시는 우뎨에서께서 마요갈라바를 대표하는 사원인 마하찌이 파고다를 소개 시켜주셨다. 뜨거운 햇살이 부처상과 흰 타일바닥을 내리 췌어 눈이 부셨다. 그간 다녀왔던 파고다들과는 다르게 한적하고 정적인 느낌의 파고다가 아띠들에게 잠시나마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해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날 오후에는 널서리스쿨의 원장선생님이신 마 에에카잉 선생님의 댁에 다녀왔다. 군인이셨던 선생님의 남편 분께 사회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선생님께서 직접 요리하신 쥘 고구마를 함께 나누어 먹으며 평소 할수 없었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다. 이 시간 이후로 아띠들은 선생님들에게 우차(어른께 먼저 음식을 권해드리는 문화.)를 드릴수 있게 되었으며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신태정 기자 2002xowjd@daum.net

하나 둘씩 교실로 모여드는 발걸음... 무슨 일일까?

10월 10일 깡홀라 마을 아띠스쿨 열려

양곤시 흘랑따야 타운십에 속한 깡홀라 마을, 라온아띠 양곤팀은 YMCA 방과후 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ATTI SCHOOL을 열었다. 수업 시간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서부터 4시까지이다. 낮 12시쯤 학교를 마치는 학생들이 점심을 먹고, 4시부터 시작한 방과후 교실 사이의 시간이다. 장소는 YMCA 널서리 스쿨 옆에 위치한 작은 교실이다. 전구 없이 자연 채광에 의존하는 이 교실에는 낮은 칠판과 8개의 앉은뱅이 책상이 있다. 아띠스쿨에 찾아오는 학생들의 연령대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부터 고등학생, 때로는 대학생들까지 다양한 편이다. 따라서 양곤팀은 15세 미만의 학생들과는 쉬운 한국어 회화, 미술, 음악 수업 등을 진행했다. 한국 드라마의 열성팬인 16세 이상의 학생들과는 지속적인 한국어 수업을 해나가고 있다.



단체 사진/▲ 아띠스쿨 한국어 수업후 촬영 (사진: 김정식 아띠)



단체 사진/▲ 아띠스쿨 수업중 (사진: 김정식 아띠)

한국어 수업으로 친해지고, 미술수업으로 알아가고, 노래 부르면서 즐기고

양곤팀은 10월에 총 3번의 수업을 진행했다. 첫 번째로 한국어 수업, 두 번째로 미술 수업, 그리고 세 번째로 음악 수업이었다. 첫 수업날 약 30여명의 학생들이 교실에 모였다. 수업 내용은 한국어 인사말 말하기와 한국어 글씨 써보기였다. 선생님이 “밍글라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아이들이 큰 소리로 따라 외쳤다. 수업이 끝난 후 소산나에(11세)는 ‘한국에서 미얀마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나’ 는 질문을 해, 선생님들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정식 단원은 ‘우리에게는 미얀마어가 새롭고, 아이들에게는 한국어가 새롭다. 새로운 언어들로 인사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친해지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 고 첫 수업 후 소감을 밝혔다.

미술 수업의 주제는 자신의 집과 가족이었다. 아이들이 부담 없이 그릴 수 있는 주제이고, 그림을 통해 아이들을 조금 더 알아가 보고자 그와 같은 주제를 정한 바였다.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를 먼저 집어들 법도 한데, 아이들은 자를 대고 정확하게 스케치를 한 후에야 색칠을 시작했다. 다 그린 그림들 속에는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대로 들어있었다. 자신이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을 그린 아이도 있었다.

한국어 배우고 싶은 학생들과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진지한 눈빛에 선생님도 더 열심히

미얀마는 17살이 대학을 입학하는 나이여서 한국어 수업은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생들은 방과후 교실 학생들이 아니지만 소문을 듣고 아띠스쿨 첫날 무려 5명이나 찾아와 주었다. ‘이들에게 한국어 수업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차라리 영어가 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었다고 아띠스쿨 한국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송다정 단원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는 순간 그런 고민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아부지” 등 드라마를 통해 배웠다는 짧은 한국어를 서슴없이 건네는 그들, 심지어 한국 영화배우가 표지에 찍힌 공책을 꺼내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먼저 말하던 그들을 보며 송다정 단원은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

아띠스쿨은 한국어 수업을 기초부터 시작했다. 다음 주에도 꼭 오겠다던 그들의 눈빛을 믿고, 흥미 위주의 일회적인 회화수업보다는 체계적으로 ㄱ, ㄴ, ㄷ, ㄹ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읽고 쓰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2시간, 아띠들에게 배우는 한국어 수업을 그들은 가벼이 여기는 법이 없다. 숙제도 꼬박꼬박 해오고 집에서 공부해오는 티도 제법 난다. 그 덕분에 2차시 만에 자음, 모음 그리고 숫자까지 진도를 나갔다. 송다정 단원은 ‘그들에게 더 나은 설명을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빠른 시일 내에 미얀마어를 배워야겠다.’ 라고, 양곤에 온 이후 처음으로 언어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였다.

한 달 동안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의 관심으로 아띠스쿨은 매주 참가 학생들이 늘어가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아띠들과 학생들은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을 더 많이 함께 보내며, 서로 한 층 더 알아가며 친해지기를 기대해본다.

권희설 기자 (noonseol@gmail.com)
송다정 기자 (djhits1626@hotmail.com)

죽어가는 도서관의 부활을 꿈꾸다 <아띠클럽 인터뷰기>

양곤 YMCA의 5층에는 Come Clean! 이라는 유료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다. 미얀마팀 멤버들은 매일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면서 매일 들락날락거리는 곳이지만, 외부인들의 유입은 거의 없다시피 한 공간이다. 이들이 최근 도서관에서 '아띠클럽' 이라는 청년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뷰에 나섰다. 인터뷰에는 팀원 정식, 태정, 다정, 희설이 응해주었다.

- 아띠라는 이름이 익숙하다. '아띠 클럽' 이라는 이름은 라온아띠 프로그램 이름에서 따온 것이지?

(정식) 조금 따운 부분도 있지만, 정식 명칭은 Atutu Imagine Club으로 엄연히 다른 이름이다. 여기서 Atutu는 미얀마어로 '함께' 라는 뜻이고, 함께 상상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만 주도해서 클럽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미얀마 청년들과 함께 상상하고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본인이 고안해낸 이름이기에,

- 청년 모임이라고 들었는데, 참가 연령층을 청년으로만 한정해둔 이유가 있는가?

(다정) 클럽참여는 일단 청년층으로만 정해두었지만 물론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다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자주 만나고 있고, 아띠 클럽이 상상하고 있는 활동들을 같이 하기에 청년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우리는 청년을 만나고 싶다. 약간 굶주린 상태이다.(웃음) 일단 대학 입학 나이인 만 17세부터를 나이 제한으로 정해두었다. 하지만 청년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환영한다.

- 아띠 클럽이 꿈꾸고 있는 클럽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태정) 아띠 클럽은 죽어있는 도서관을 살려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모습은 먼저 이곳 도서관이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이고, 동시에 이 도서관이 청년 모임이든, 주부 모임이든 커뮤니티의 중심이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먼 훗날, 아띠들이 떠난 뒤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띠 클럽은 그 이상을 향한 출발에 불과하다.



단체 사진/▲ 아띠클럽 도서관내 셀카 (사진: 김정식 아띠)

- 곧 다가오는 아띠 클럽의 오프닝 파티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희설) 파티라고 하니 좀 거창한 느낌인데, 간단한 행사로 준비를 하고 있다. 먼저, 서로 어색함을 풀기위해 몇 가지 게임을 준비했다. 다음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고, 뒤이어 아띠클럽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설 명하는 시간도 있다. 그리고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서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가늠해보려 한다. 미얀마어와 영어로 된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냈고, 페이스북 페이지와 오프라인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참석하고 싶다는 신청문자가 벌써부터 쇄도하고 있어서 좋긴 한데, 그만큼 공간을 마련하는게 걱정이다. 행복한 걱정이다.(웃음)

월요일 오후, 창밖으로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도서관 내부는 아띠들의 열정 때문인지 후끈했다. 이들의 참신한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본다.

인터뷰=백종석 기자 (odysseus78@naver.com)

<광고>

**အတူတူစိတ်ကူးယဉ်အဖွဲ့၊
အသင်းဖွင့်ပွဲ။**

တာဝန်ယူသူကိုးရီးယားလူမျိုး၅ယောက်မှ၊

ဘယ်သူ၊
ဘုရားနှင့်အထက်လူငယ်များကိုစိတ်ကြားပါသည်။
ဘယ်အချိန်၊
၂၀၁၄ ခုနှစ် နိုဝင်ဘာလ တစ်ရက် စနေနေ့ ညနေ ၄နာရီ၊
နေရာ၊
အခန်းအမှတ်၅၁၂၊ ၅လွှာ၊ ရန်ကုန် YMCA။
ဘာလဲ၊
ATTIအတွက်အသင်းဖွင့်ပွဲ။

ဘယ်လိုဆက်သွယ်မလဲ၊
အောက်တိုဘာ ၂၀ရက်မတိုင်မှီသင်တို့၏အမည်နှင့်
အသက်ကိုအောက်ပါဖုန်းနံပါတ် 0930010044 သို့ပေးပို့ပါ။

facebook.com/ATTICLUB.YGN

RaonAtti

**.ATUTUImagine CLUB.
opening party**

hosting by 5 bored Korean

Who : Inviting all young people but 17and up
When : 4 pm, Saturday, Nov 1st 2014
Where : 513, 5th floor, YGN YMCA
What : Opening Party for ATTI CLUB

How to join
Please send us text message including
your name & age, before Oct 30th
Number_0930010044

P.S. We play Games, teatime and lots of fun prepare.
Http://www.facebook.com/ATTICLUB.YGN

RaonAtti



단체 사진/▲ 10월 24일 한국문화 행사기념사진 (사진: 김정식 아띠)

KB 한국어학당 1주년 기념 ‘한국문화행사’ 참석

24일 KB 한국어학당에서 1주년을 맞아 개최한 ‘한국문화행사’에 라온아띠 미얀마팀도 참여하여 일손을 보탤다.

양곤 메양곤구(Mayangon Township)에 위치한 KB 한국어학당은 KB국민은행이 후원하고, BBB Korea와 협력하여 양곤의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학생들의 축하공연으로 시작하여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전통 탈 만들기를 진행하였고, 다 같이 한국음식을 나눠먹는 것으로 끝이 났다.

다소 이른 오전부터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약 50명가량의 미얀마 청년들이 참가했고, 양곤 YMCA의 우 따난, 도 산드라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행사에서 김치 만들기를 보조한 권희설 양은 “다양한 미얀마 청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 11월부터 이곳에서 활동을 할지 팀 내부적으로 논의중인데,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얀마 팀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남아 한혜경 학당장과 향후 협력방안에 관한 논의 시간을 가졌다.

백종석 기자 odysseus78@naver.com



다를바 없는 일상, 고아원에 가다

양곤YMCA 이사진중 한분인 우루에 씨의 양곤에서 침례교회를 운영하는 동시에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남,녀 30여명정도로 연령대는 방문했을 당시 10대가 대부분임을 볼 수 있었다. 교회에 참석하는 교인의 수는 약100여명 정도였으며 양곤 시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던 탓인지 이야기를 나눠본 분들의 직업은(대부분 남자) 양곤 시내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년이상 운영해오시면서 가장 큰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양곤YMCA의 지원과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족관, 그리고 헌금으로 제정부분을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고아원과 교회를 동시에 운영하는 와중에서도 루에 씨의 양곤YMCA의 이사로서 많은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여 교회 밖으로도 활동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교회는 한국교회에서 매년 연말즈음 선교사가 파견되는 곳이기도 하여 한국어 복음서가 책들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다른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활발하며 웃음이 많은 모습을 보였다. 물론 방문하였을 당시 아띠들이 외부 손님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곳의 원생들과 부족한 미얀마어로 조금씩 대화하고 같이 찬양을 불렀을 때(필자는 기독교인임을 밝힌다)아이들의 진실된 표정이나 몸짓들이 손님으로만 받아들인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모습또한 우루에 씨의 교육에 의한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아띠들은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없이 방문을 했었다. 따라서 루에 씨 목사님께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 하셨을 때 적잖히 당황하였지만, 고작 1일 방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교육한다던가 하는 활동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띠들은 축구와 따꼬로(세팍타크로), 그리고 기타반주와 같이 찬양부르기, 찬양배우기와 같은 활동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목사님댁에 방문하여 가족들과의 인사를 나누었고, 교회운영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비롯하여 답소를 나누는 것으로 교회방문을 마쳤다.

김정식 기자 jeongsik2da@naver.com



사진/▲ (왼)액팅스쿨 발표회 사진 (오른쪽) 데일리뉴스 신문에 실린 아띠들 (사진: 김정식 아띠)

액팅스쿨에 손가락만 얹어 공중파 진출?

지난 9월29일 양곤YMCA에서 액팅스쿨 연극 발표회가 있었다. 양곤YMCA에서 연극, 영화를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숨겨왔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쳐내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미얀마에서 유명한 배우이신 양곤Y의 사무총장님 부인 분께서도 함께 하였고, 각종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취재를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어느 한 기자분께서 이 자리에 참여한 유일한 한국인이었던 아띠들을 발견하시고 아띠들을 인터뷰 해 가셨다.

그리고 10월 8일, 데일리 뉴스 신문에 아띠들의 사진이 크게 실린 기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보도 내용>

한국에서 온 다섯명의 청년들.(라온아띠) 그들은 양곤YMCA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KB국민은행의 후원을 받으며 혈랑따야, 마오끌라바, 쉐피따를 오가며 봉사활동 중이다. 그들은 미얀마가 어떠한 것 같냐는 질문에 치안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이다. 미얀마 사람들은 정이 많다고 답하였다.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는 별 그대 이며 인기 연예인으로는 전지현 김수현이 있다고 하였다.

몇 일 뒤에 최초 외국인 콘서트를 열게 될 아이돌 M.I.B에 대해서는 인기가 많은 그룹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TV드라마에 나오는 한국인 배우들과는 다르게 생긴 편이었다. 이들은 2월까지 양곤Y에서 살고 있을 계획이라고 하였다.

신태정 기자/ 2002xowjd@daum.net



단체 사진/▲ 우띠아웅쉐 이사님택 (사진: 김정식 아띠)

전 미얀마 YMCA연맹 총장님이시자 현 양곤 YMCA 이사회 멤버이신 우띠아웅쉐(U Tin Aung Swe)씨는 여든을 바라보시는 매우 유쾌한 분이시다. 그분의 초대로 아띠들은 2번의 매우 즐거운 주말을 보냈다고 한다. 10월 18일, 우띠아웅쉐씨의 사위인 우슬로우맨(U Slontmun)씨와 우슬로우맨의 두 딸, 피비와 뤼셀,의 동행으로 아띠들의 즐거운 토요일 외출이 시작되었다. 양곤에서 어디 어디 가봤냐는 우슬로우맨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질문과 함께, 아띠들은 Kaikhaunt 사원으로 출발했다. Kaikhaunt 사원은 배를 타야 들어갈 수 있는, 강 한가운데 섬처럼 떠있는 사원으로 유명하다. 우슬로우맨도 미얀마 사람이지만 너무 바쁜 일상생활에 양곤 관광지는 잘 다녀보지 못했다는 것이 함정이었다. 배에 신발을 맡기는 시스템을 몰랐던

아낌없이 베풀어준 그들

우슬로우맨과 아띠들은 차에 신발을 벗어놓고 주차장부터 선착장까지 무려 5분정도 되는 뜨거운 아스팔트 길을 맨발로 걸어가야 했다. ‘그래도 마냥 즐거운 기억이었다. ‘라고 권희설 아띠는 웃으며 말해주었다.

오후에는 Pansodan 항구에서 양곤강 건너편 지역인 Dalah에 가서 차도 마셨다고 한다. 미얀마 사람에게는 200짖(한화 약 200원)인 뱃값이 외국인에게는 4000짖(한화 약 4000원)이었다. 그날 저녁, 아띠들은 소문으로만 들던 차이나 타운 세꼬랑(19번가)에 있는 유명한 꼬치집에도 가게 되었다. 즐거운 추억과 배부르게 먹고 마신 아띠들은 ‘오늘이 미얀마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다. ‘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10월 26일, 아띠들은 오후에 우슬로우맨 집에 초대되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였다고 한다. 메뉴는 놀랍게도 한식이었다. 우슬로우맨의 아내분은 12년동안 주 미얀마 한국대사관에서 일하신 분으로, ‘웬만한 한국인보다 한국요리를 잘하신다. ‘라고 김정식 아띠는 밝혔다. 불고기, 무국, 오징어볶음, 미역초무침에 양배추 쌈까지. 거의 두 달만에 처음으로 한식을 접한 아띠들은 정신없이 먹기만 했다.

‘정말 좋은 사람들과의 즐거운 시간이었다. ‘라고 말하는 아띠들의 얼굴에는 행복함과 감사함이 묻어 있었다. 탁구를 좋아하는 우슬로우맨과 뤼셀. 그리고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피비. 아띠들은 그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조만간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

송다정 기자 (djhits1626@hotmail.com)



단체 사진/▲ (왼)띠띠의 가족과 아띠들이 마당에서 찍은 사진. 띠띠의 아버지는 일을 나가 안 계셨다. (사진: 김정식 아띠)

늘 열정적인 Naw Thi Thi Aung, 그녀와의 하루

Naw Thi Thi Aung(카렌족 사람들의 이름 앞에는 Naw가 붙는다. 이하 애칭인 띠띠로 표기한다.)은 양곤 YMCA 널서리 스쿨의 선생님이다. 띠띠가 Y에서 일한지는 2년이 넘었다. 짙은 쌍꺼풀에 동그란 얼굴, 마른 몸의 그녀를 보면 아직한 소녀 같다는 인상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띠띠는 강하고 열성적이며 야망이 있는 청년이다. 버스로 2시간이 걸리는 출근길에 피곤할 법도 한데, 안부를 묻는 질문에 언제나 괜찮다며 “Thi Thi is strong” 이라는 말로 대답한다. 대학교에서 미얀마어와 빨리어(고대 불교 언어)를 전공한 띠띠는 아띠들의 든든한 영-미얀마어 사전이기도 하다.

그런 띠띠가 아띠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다. 띠띠네 집은 밉글라도 타운십에 있는데, 이는 양곤 국제공항이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이름 모를 나무들이 삐죽삐죽 잔가지를 드리운 골목길을 걸어가자 작은 마당이 있는 띠띠네 집이 나왔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띠띠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자매들이 아띠들을 반갑게 맞아주셨다.

이날 띠띠의 이모께서 훌륭한 요리 솜씨를 발휘해 점심을 한 상 가득 차려주셨다. 아띠들은 아직도 이곳에서 먹은 응아뽕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응아뽕은 생선과 야채들을 잘게 다진 뒤 매운 고추와 함께 절여 알싸한 맛이 도는 양념이다. 아띠들은 오이에 얹어 먹는 응아뽕에 훌쩍 반해서 밥을 다 먹은 뒤에도 오이를 두 그릇이나 먹었다. 배도 불렀으니, 다음으로는 마을 구경을 나설 차례였다. 띠띠와 띠띠의 이모가 동반자였다.

우리가 가장 처음 들른 곳은 마을의 절 학교였다. 절 학교는 Domma School Foundation이라는 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기 훨씬 전부터 미얀마에서는 절이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해왔다고 하는데,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아띠들은 주지스님-교장선생님을 만나서 학교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국립 초등학교와 똑같은 교과 과정을 밟지만 스님들로부터 불교 명상 등 불교적 가치들도 배운다.

학교를 방문한 뒤에 띠띠는 아띠들을 불교 사원들로 이끌었다. 과연 불교의 나라답게 금빛 파고다가 한 가운데에 자리한 사원들이 걸어서 10분 간격으로 세 곳이나 있었다! 아띠들은 차례차례 한 군데씩 들렀다. 이날 들른 사원들은 쉼다곤 파고다처럼 사람 많은 큰 사원은 아니었다. 별 뜨거운 낮에 그늘을 찾아 쉬어가기 좋은, 마을의 고요한 쉼터 같은 작은 사원들이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고, 야자나무 아래 연못에서 붕어들이 조용히 헤엄쳤다. 연못 위의 작은 정자 같은 곳에서 아띠들은 띠띠, 띠띠 이모와 함께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다. 손님맛이에 조금은 긴장한 듯 힘을 주고 있던 띠띠의 큰 눈도 그 시간만큼은 편안해져 먼 곳을 바라보았다.

아띠들이 그토록 만류를 했는데도 띠띠는 YMCA까지 아띠들을 데려다주고 2시간 길을 버스로 되돌아갔다. 띠띠는 그런 사람이다. 그녀는 11월부터 시작될 아띠들의 정식 미얀마어 클래스에도 자원 선생님이로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띠들은 언어를 넘어 그녀로부터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권희설 기자 (noonseol@gmail.com)

10월 23일 YMCA 스태프인 델루씨가 기쁜 미소를 띄며 Y의 직원분들과 아띠들에게 귀여운 선물을 한 응큼씩 건넸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과자였다. '인디언데이' '몽(snack)' 만을 외치는 델루씨. 델루씨가 여러 사람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준 이유는 무엇일까? 인디언데이는 무엇일까?

양곤YMCA 스태프인 라주씨와 인디언 스위트 가게 'MAHARAJA' 직원분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알아보았다.

인디언데이는 인디언들에게 있어 굉장히 의미가 큰 날이다. 신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며 1년에 단 하루뿐인 이 날, 신과 만나는 날 이기 때문이다. 이슬람, 힌두, 무슬림교 모두 다 각자의 인디언 달력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힌두 인디언데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힌두 달력으로 매 해 음력 9월 30일이 되는 날이면 힌두 인디언들은 몹시 분주해진다.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 찰리디, 꾸쉬, 차파디 라는 음식을 만들어 이웃들과 나누어 먹기도 하고 피크닉을 가기도 한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온 가족과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달을 보며 신께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한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이, 종교의 구분없이 인디언 모두가 즐겨먹는 간식으로, 동그란 모양의 sweets가 있다는 것이다.



인디언들의 달콤한 연결고리. Indian Sweets

양곤 Mahabandoola st에 있는 유일한 sweets가게인 'MAHARAJA' 는 가게를 개업한지 한 달 하고도 반이 되었다. 이곳에 Indian sweets가게가 생겼다는 소문이 아직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수가 적지 않은 편이었다. 손님들이 소수로 오기도, 다수로 오기도 하지만 여기 미얀마 사람들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낯선 사람들끼리 마주쳐도 웃으며 대화하며 즐겁게 간식을 먹고 가게를 나서는 모습이 정겨워 보였다. 어둡고 좁은 가게안에 몇 안되는 sweets들이 조금씩 나열되어 있는 모습이 일반 대형 제과점들과는 다른 인디언 특유의 부드럽고 섬세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다양한 종류의 인디언들과 미얀마 사람들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달콤한 sweets. 그리고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보라색 간판의 'MAHARAJA' 가게. 앞으로도 편안한 만남의 공간으로써 이 가게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인디언데이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sweets 한 입 하며 달콤한 만남을 시작해 보아도 참 좋을 것 같다.

신태정 기자 2002xowjd@daum.net



양곤의 밤은 부드럽다

미얀마는 항상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곳 양곤도 하루에 정전이 3,4번씩 되는 날이 부지기수이고, 지방에는 전기의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나 된다. 미얀마 정부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력담당 부처를 독립시키고 수력발전 댐을 여럿 건설 중이지만, 전력난은 당분간 미얀마의 고질적인 문제가 될 듯하다.

하지만 덕분에 양곤의 밤은 참으로 부드럽다. 밤 9시만 되어도 가게들이 문을 닫고 거리는 어둑어둑해진다. 가로등이 많지 않아 어두컴컴한 거리를 차도, 사람도 잘 나다니지 않는다. 7층 발코니에 서서 양곤 강 쪽을 바라다보면, 어두운 건물들의 실루엣 너머로 파고다만이 은은하게 빛나고, 초롱초롱히 빛나는 별과 달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잠들 시간이 되어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진짜 어둠' 이 밀려들어와 폭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전력난의 이면에는 이렇게 좀 더 '인간적인' 밤이 상존하고 있었다.

백종석 기자 odysseus78@naver.com

ASEAN 등 잇단 정상회의... 세계의 시선 미얀마로 이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세계의 관심이 미얀마로 쏠리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SEAN+3(한·중·일) 정상회의가 잇따라 열려 주요국 정상들이 대거 미얀마에 집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회의가 개최되는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는 12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아세안 10개 회원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이 모인다. 미얀마는 올해 아세안 순회 의장국으로 지난 5월에는 아세안 10개국만 참여한 회의를 개최했으나 이번엔 아세안을 비롯 8개 협력국과 확대 정상회담을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협력, 분쟁방지 등 국제안보와 경제 현안 등 광범위한 논의를 가진다.

지난 2011년 개혁·개방을 실시한 미얀마는 여전히 인권탄압 등 여러 문제로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연이은 이번 정상회의는 국제사회에 개혁성과를 보여줄 좋은 기회다.

미얀마軍에 사살된 기자 시신에 고문 흔적

5일 미얀마 군에 사살된 채 발견된 프리랜서 기자의 시신에 죽기 전 고문을 당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고 숨진 기자의 부인이 6일 밝혔다.

숨진 아웅 키아우 나잉의 부인 마 탄다르는 남편의 시신은 두개골과 턱이 부서지고 가슴에 2군데 구멍이 나 있었다고 밝혔다.

코 파기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나잉 기자는 지난 9월 몽주(州)에서 군과 카렌 소수민족 간 충돌을 취재하다 군에 억류됐었다.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부인 마 탄다르의 의문 제기엔 군은 나잉이 탈출을 기도하다 지난 4일 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미얀마의 저명한 사회 운동가인 마 탄다르는 다른 운동가들과 함께 남편의 시신 발굴 작업을 지켜봤는데 총상 외에도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두개골과 턱이 부서져 있었으며 이빨도 모두 깨져 있었다며, 이는 남편이 죽기 전 고문을 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의 시신이 병원으로 옮겨져 부검을 받았는데 두개골이 부서진 것과 가슴에 난 2개의 구멍은 총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물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두개골과 턱 이외에도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지고 발목도 부러진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탄다르는 남편 시신에 대한 X-레이 사진이 곧 나올 것이지만 완전한 부검 보고서가 언제 나올지는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미얀마는 3년 전부터 반세기에 걸친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 개혁을 시작했지만 이 기자의 죽음은 미얀마 군부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 [출처=AP/뉴시스 유세진 기자]

미얀마 축구팀 U-19 4강 진출 42년만의 쾌거

미얀마 축구팀이 최근 자국서 열린 2014 아시아축구연맹(AFC) U-19 챔피언십 8강전에서 아랍에미리트(UAE)를 1-0으로 꺾고 내년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출전티켓을 따냈다. 미얀마는 자국 사상 처음으로 FIFA 20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할 자격을 얻으면서 환호성을 질렀다.

UAE전이 끝난 뒤에는 흥분한 팬들이 모두 그라운드로 난입해 AFC로부터 2만4000달러(약 2500만원)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미얀마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 축구대표팀이 아시아를 넘어 국제무대에 진출한 것은 1972년 동독 베를린 올림픽 이후 42년 만이었다. 그라운드로 난입한 관중과 선수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미얀마(FIFA랭킹 143위)는 1960~70년대 아시아 축구에서 강국으로 꼽혔다. 미얀마는 1966년과 1970년 두 대회 연속

아시안게임 정상에 올랐을 정도로 전성기를 보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 축구의 강국이었던 미얀마는 이후 정치, 경제적 불안 속에서 40여 년 동안 아시아 축구의 변방으로 밀려났다.

미얀마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2008년 당시 총리였던 테인 세인 현 대통령의 지휘 속에서 미얀마 프로축구리그(MNL)를 출범시켰고 2011년에는 정부차원에서 한국에 지도자 파견을 요청, 박성화 감독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2년 간 지휘봉을 잡기도 했다. 정부의 지휘 아래 MNL에는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

미얀마는 여전히 1인당 국민소득이 900달러 정도로 동남아에서도 최빈국으로 꼽히지만 축구 열기만은 그 어디보다 뜨겁다. 옛 영광을 꿈꾸는 미얀마 축구에 조금씩 봄바람이 불고 있다.

/ [출처=뉴스1 이재상 기자]

미얀마, 수치여사 대선 출마금지 헌법조항 개정검토

미얀마 의회는 민주화 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여사의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 흐투트 대통령실 대변인은 수치 여사, 테인 세인 대통령 등 미얀마 주요 정치 지도자들이 내년 말로 예정된 총선을 앞두고 31일 헌법 개정, 민주화 개혁 등을 논의하고 나서 헌법 개정 문제를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어 노벨평화상을 받았던 수치 여사는 유력한 대선 후보이며, 그가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당은 총선 승리가 예상된다. 그러나 수치 여사는 가족 중 외국 국적자가 있으면 대선 출마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 때문에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영국인 학자와 결혼했던 수치 여사는 영국 국적 아들 두 명을 두고 있다.

이번 회담은 테인 세인 대통령이 제안해 성사됐으며 쉘망 연방의회의장,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 정당 및 소수 민족 지도자 등 정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했다고 AP,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수치 여사는 헌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자신과 테인 세인 대통령, 쉘망 연방의회의장,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이 참석하는 4자 회담 개최를 촉구해왔으며, 이들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편해진다는 것

양곤에 와서 많은 것들이 변했다.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편해진 것 같다.’ 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확실히 이곳에 와서 ‘한가로운 시간’ 들을 많이 보내고 있다. 하루 종일 거리를 쏘다니기도 하고, 갑자기 시작한 타자연습과, 베란다에 나가 멍하게 서있었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게으름은 아닐 것이다. 한국에서는 거의 항상 불안했다. 나도 모르게 경쟁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고, 남은 시간에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왔다. 그 날카롭고 불안불안했던 내 경계심이 팀원들과 부대끼고, 이곳의 삶에 녹아들면서 조금은 풀어진 게 아닐지. 그 와중에 한번 뿐인 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도 되겠구나하고 마음이 놓인 순간도 있었다. 내게 편해진다는 것은 삶의 태도가 바뀌어 간다는 것, 내 삶에 확신을 가지는 것일 터, 편함과 나태를 구분하고, 편함과 안주를 구분하면서 남은 날들도 편하게, 동시에 충만하게 살아내자. / 백종석 odysseus78@naver.com

하루하루 성장하는 자신을 돌아 볼 때의 기분은 참 묘하면서도 뿌듯하다. 양곤에 도착하고 첫달은 서로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시기였다면(물론 서로의 기분을 살피는건 당연한 태도이다), 10월은 눈치를 보면서 용감하게 이야기 해주었던 조언들을 하나둘씩 받아들이고 고치는 시기였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무서우면서도 평안함을 나에게 가져다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아가는 중인 것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나를 100퍼센트 알지 못한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 대하여도 100퍼센트를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왜냐하면 스스로 거부하던 자신의 태도나 생활방식 들은 스스로에게 무더져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태도나 방식을 볼 때면 그것의 날카롭거나 부드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의 태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대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에 더더욱 느낄 수 없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5명의 팀원안에서 그들밖에 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니 미안함과 창피함이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힘찬 연어들 마냥 펄쩍펄쩍 뛰어 올라 나를 물어뜯기도 했다. 내가 반성연어에게 반쯤 뜯어 먹혔을 무렵 쉼삐따의 스님은 손을 잡아주셨다.



여기부터 몇 문단은 에피소드 이기 때문에 지루하신 분들은 시간이 날 때 읽어보시길 바란다.

그날은 쉼삐따 학교의 시험이 끝난 날이어서 아이들 수업이 없었다. 그래서 스님은 우리(아띠,우뎬에 할아버지)와 같이 쉼삐따에 있는 큰 파고다에 데려가셨다. 마침 그 파고다에서 몇 백년 이상된 불상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있었는데 다들 짧은 바지를 입고 있어서 들어 갈 수 없었다. 운 좋게도 나는 풀렁풀렁한 몽뻬바지를 입고 있어서 혼자 들어갈 수 있었다. 구경을 아주 찰지게 하고 나올 무렵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했다. ‘다들 이 앞에서 기다리지 않을 텐데 어디가서 찾지?’ 하며 계단을 내려와보니 스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스님이 날 바라보며 웃으며 무슨 말과 함께 다가오셨다. 아마도 “어~ 잘봤어?” 이런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리고 스님은 내 손을 꼬옥 잡으면서 어디론가 데려가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스님은 나에게 약간 어색한 분이였다. 말도 잘 통하지 않고 인사 몇마디 같이 나누는 정도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내 왼손을 오른손으로 덮으며 꼭 잡으시더니 일행이 있는 곳으로 신발도 신지 않은 나를 끌고 다니셨다. 그런데 스님도 일행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셨고 15분정도를 신발을 신지 않은 채로 이리저리 끌려 다녔다. 그 와중에도 스님께서는 한 번도 나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

왜 그랬을까. 스님이 나의 손을 꼭잡은 순간부터 나는 그분의 얼굴만 생각하면 눈에 물이 넘칠려고했다. 몇 번은 수도꼭지를 잘 잠그지 못해서 팔팔 쏟아진 때도 있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니 그 이유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 직접 얼굴을 보며 인사한건 10번 정도가 고작이건만, 그분은 진심으로 나를 대해주셨던 것이다. 그것을 머리보다 몸이 먼저 느끼기 시작하여 그러한 물 넘침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그런 진심어린 모습을 보여 주시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진심으로 나를 대해줬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팀원들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죄책감과 동시에 감사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것이 정리가 되니 앞서 말했던 받아들이고 고치는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타인이 나에게 조언을 할 때는 적어도 나를 위한생각에 앞서 그들이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수 밖에 없고, 그들의 표현에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되어버렸다. 지금도 반성연어가 나를 뜯어먹고 있다. / 김정식 jeongsik2da@naver.com



수요일 아침이면 살짝 긴장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웨피따에서는 선생님,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미얀마어 한 가지 밖에 없기 때문에 HIwaga 행 기차를 타는 순간부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편에 할아버지에게 미얀마어를 배운다. 이 문장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이 단어는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부한다. 그리고 수업이 시작되면 내가 공부했던 말의 80퍼센트는 전달되지 못한다. (이유는 아마도 어색한 나의 발음 때문인 듯 하다.) 그러면 대본 스크립트를 내려놓고 온 갖 바디랭귀지와 춤을 춰댄다. 그럼 그제서야 아이들이 싱긋 웃으며 호우께!(네) 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수업이 끝나면 셔츠가 땀으로 다 젖고 머리카락이 사사 같이 변한다.

몸에 실린 힘을 빼고, 숙소로 돌아가는 차안에서 창밖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하늘은 푸르고 풀썩이 우는 소리는 들관위에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무지개 빛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 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온 몸에 행복한 전율이 오른다. 웨피따에 있으면 내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 알게 된다. 늘 가지고 다니는 노트가 달가워질 정도로 오래 붙들고 다니고, 목이 간지러울 정도로 소리를 치며 아이들과 뛰어논다. 가끔 멍투성이인 다리를 보게 될 때도 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차안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조신하게 감성적 모드로 돌입한다.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 아버지에게 했었던 말이 있다. “어릴때는 바깥공기를 맡으면 콧등이 시릴 정도로 시원했고, 풍경을 보면 모든게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였어요. 음식을 먹으면 단맛이 찌릿하게 느껴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기도 시원하지 않고 눈 앞에 보이는 것들도 탁하게 보여요. 시력이 떨어졌나봐요. 안경을 끼야 할 것 같아요.” 그 때 아버지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건 내가 일상생활에 익숙해졌다는 거야. 시간이 흐르고 네가 성장하면서 보는 것에 익숙해지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커져가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 나는 단 한번도 선명한 색감을 보거나 시원한 공기를 맡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요즘들어 그 선명함을 다시 느끼고 있다. 설레이고 있다. 수업시간에는 말 한마디 없고 또래친구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는 조용한 동자승이 정식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활짝 웃는 모습을 보일 때. 오늘부터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며 내 머리에 꽃을 꽂아주며 볼에 키스해주는 예쁜아이를 만났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들의 순수함이, 진실됨이 내게 신선하게 다가온 것 같다.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감사하다. 웨피따 가는 날을 준비하는 나와 우리의 노력들이 땀방울으로 흐를 때, 아이들이 웃어줄 때 너무 행복하다.



신태정 / 2002xowjd@daum.net



10월은 정말 눈깜짝 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얀마에 살고 있는 나에게 참으로 많은 고마움들이 생겼다. 너무 많아서 순서대로 5개만 적어봐야겠다.

첫째는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힘이 되는 멤버들. 살쥔다고 투덜거리지만 내 눈에는 항상 예쁜 태정이,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베란다에서 친해진 설이, 살빠져서 더 잘생겨졌지만 그래도 마음이 더 잘생긴 식이, 머리깎고 군인정신을 득템한 얼굴 잘생긴 종석이. 활동에는 별 도움 안 되는 개인적인 고민들도 들어주고 술 먹으면 많아지는 푸념들까지 들어주는 고마운 동생들. 정말 고맙습니다.

둘째는 항상 옆집 삼촌처럼 친근하게 우리를 챙겨주시는 양곤YMCA 사무총장님 닥터따난과 진심 엄마처럼 밥한끼조차 신경써주시지만 세상에서 제일 바빠보이는 우리 코디 산드라. 예의 상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합니다.

셋째는 예쁜 밤하늘과 맛있는 음식들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밀크티 레페이에를 가지고 있는 도시, 양곤. 매일 새로운 피곤함을 선사하여 나의 불면증을 흔적 없이 가져가버린 양곤, 정말 고맙습니다.

넷째는 너무 사랑스러운 미얀마 아이들. 때로는 날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는거 때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미얀마에서 유일하게 나에게 뽀뽀를 해주는 귀여운 자식들. 나한테서 아무리 땀냄새가 나도 한결같이 달려와 안기는 꼬마들이 나는 너무 좋다. 뽀뽀 고맙습니다. 이 몸이 부셔져라 목마도 태워드리고 같이 놀아드릴게요.

다섯째는 우리를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미얀마 청년들과 서슴없이 대화를 하게 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주시고, 그들이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배울 동기부여를 해주신 한국 아이돌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와서 여러분들의 존재와 노래들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어 미안합니다. 특별히 방탄소년단과 MIB, 열심히 땀을 흘리며 한류를 전파하고 계실텐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송다정은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차도 잘 마시고 부족함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고민하며 느끼며, 남은 3개월도 잘 살겠습니다.

송다정 djhits1626@hotmail.com



9월의 나는 미얀마에서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며 새로운 사람들, 언어를 알아가기에 바빴다고 한다면, 10월의 나는 외부의 자극들에 반응하는 스스로의 내면을 흥미롭게 들여다보았다고 할 수 있다. 매일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는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일상이 쌓여서 일어나는 한 사람의 내적인 변화는 ‘나 머리를 한 5cm정도 잘랐어’ 라는 말처럼 명쾌하게 설명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꼬물닥 꼬물닥 거리며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다만 책을 읽을 때에도, 이를 닦을 때에도, 자려고 이불을 덮을 때에도 몇 가지 질문들이 불쑥 튀어나오곤 한다. 라온아띠의 과정을 지나면서 나는 타인과 친구로 살아갈 줄 아는 인간으로, 그 기쁨을 알고 그러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경쟁으로 얻는 결과로만 나를 인정하지 않고, 언제나 과정 중에 있는 나를 북돋워주는 자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진가 아닌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한국을 떠나 미얀마에서 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등등. 나에게 가장 흥미로운 질문은 세 번째다. 한국에서 고민해본 적이 없는 물음들을 나는 이곳에서 던지고 있다.

최근 들어 내가 팀원들에게서 발견하는 변화들, 팀원들이 나눔 시간에 고백하는 자신의 변화들을 보거나 들을 때면 나는 신비로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그런 변화들은 양곤에서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주는 신비로움인 것 같다. 어디를 가서 누구와 무엇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들이 이런 신비로움을 계속 경험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종석 오빠가 가져온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리스인 조르바」에서 내가 가장 스틸 있게 읽었던 부분을 이곳에 나누며 에세이를 마치려고 한다. 소설의 화자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고와 행동방식을 가진 ‘조르바’라는 사람을 만나 함께 살게 되고, 마침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된다. 이 짧은 문단을 읽다가 나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나는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성숙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뿐이었다. 나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변화하는 나 자신을 스스로 지켜보는 일, 오장육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겪은 셈이었다. 바닷가에 쪼그리고 앉은 그 따뜻한 밤에 나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았다.

별빛이 희미해지고 가는 붓으로 그린 듯한 나무와 산과 갈매기 뒤로 하늘이 밝아 왔다.

「그리스인 조르바」 24장 중에서

권희설 noonseol@gmail.com

<문예 한마당>

머루 따다가

양곤 잉여 5인 합작

나즘 봐주오
오늘이 가면
면사포 쓰고
고즈넉한 강
강가에 앉아
아련한 마음
음울에 띄워
워낭소리와
와르르 내맘
맘 전하겠지
지평선 너머

해설: 위 시는 쉼베따에서 양곤으로 오던 5명의 아띠들이 피로와 허기를 잊기 위하여 끝말잇기를 하던중 끝말잇기로 시를 써보자는 어느 잉여의 제안에 의하여 창작된 명작이도다

발행처: 라온아띠 미얀마팀
발행인: 라온아띠 미얀마팀
발행일: 2014년 11월 10일
후원처: KB국민은행, YMCA
협찬인: 마 산드라, 우 따난
정동민 간사님, 주은지 간사님
우웬토우, 우뎬예, 레이꼬우

부모님 감사합니다.

인물소개 2탄



민민에 (Y스태프)
열아홉 소녀



라주 (Y스태프)
잘생긴 오라버니



멜루 (Y스태프)
아띠들의 수호천사



우 흘라미에 (Y스태프)
인자하신 쉘프님



깨띠 (Y스태프)
양곤Y의 매력녀



묘묘쫘 (Y스태프)
수줍수줍 열매먹은 묘쫘



메리진 (Y스태프)
백 의... 그녀..<3

10월 일정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E.P.C - End Poverty Campaign ※ N.S - Nursery School A.S - ATTI School A.C - ATTI Club			1 Hlaing Tharyar ●지역 맵핑 ●앤드포버티 회의	2 Shwe phi thar ●주지 스님과 파고다 견학	3 Hlaing Tharyar ●N.S & A.S ●Atti School Q&A	4 Day off ●Holiday
			5 Social ●Thanlyin교회 및 고아원 방문 (Lu Aye 목사님)	6 Day off ●Indian day ●Inyar lake-picnic	7 North Okkalapa ●N.S	8 Day off ●보름축제 ●9월 평가 피드백
12 Social ●THI THI 집 방문 (밍글라도)	13 Yangon YMCA ●N.S ●E.P.C 및 A.C 회의	14 North Okkalapa ●N.S	15 Hlaing Tharyar ●E.P.C 사전조사 및 준비작업	16 Shwe phi thar ●미술 수업 (가족과 집 그리기)	17 Hlaing Tharyar ●E.P.C	18 Social ●슬로맨씨와 우띠아웅 쉘 덕에 방문 및 저녁식사
19 Day off ●아띠클럽 파티 준비 (포스터, 파티내용 준비)	20 Yangon YMCA ●N.S ●아띠클럽 파티 준비 (포스터, 파티내용 준비)	21 North Okkalapa ●N.S ●선생님 댁 방문(2분)	22 Hlaing Tharyar ●N.S & A.S ●미술수업 진행	23 Day off ●Indian day ●박스게시판(숙소) 제작 및 아띠클럽 파티 준비	24 Social ●KB 한국어 학당 - 한국 문화의 날 행사 보조	25 Day off ●아띠클럽 파티 행사 준비
26 Social ●우 띠아웅쉐 이사님 댁에 초대받아 저녁 만찬	27 Yangon YMCA ●N.S ●신태정-Birth day ●도서관 포스터 배포 ●페이스북 페이지 오픈	28 Social ●YMCA에서 지원하는 암센터 호스피스 병동 및 정신병원 방문	29 Social ●KB 양곤 김학수 사무 소장님과 미팅 & 점심 식사	30 Shwe phi thar ●미술 수업 (친구 그리기)	31 Hlaing Tharyar ●N.S & A.S ●음악수업 (아리랑, 오나라)	

사진 전시회

아띠들의 못다한 이야기



